대통령실 3실 8수석 체제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 준비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달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 의지를 보이겠다는 차원에서 전담 수석실을 만드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저출생수석실 인선과 규모 등에 대해 대통령실은 “출발 단계”라며 이른 시일 내에 적임자를 찾아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슬림화’를 약속하며 대통령실을 ‘2실(비서실·안보실) 5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 체제로 꾸렸다. 그러나 지난 7일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는 등 ‘3실(비서실·정책실·안보실) 7수석(정무·홍보·민정·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 체제로 확대된 뒤 저출생수석실이 추가되며 3실 8수석 체제로 커질 전망이다.